불교 지성 위한 반야의 요람 10년

11월 1일 제10회 반야학술상 시상식 개최

불교학 연구 동기 부여
현대에 맞는 불교 관점
인재불사 및 연구 이어
학자들 연구 공덕 찬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반야불교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반야학술상 시상이 10회를 맞았다. 반야학술상은 국내 불교학술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음, 즉 선불교를 강조하는 한국불교에서 학자들은 뛰어난 연구 성과가 있어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기부여가 부족했다. 그 시대 좁고 편향된 사고를 뒤로 하고 반야학술상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계기를 안겨줬다. 균형 잡힌 시각과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현대인과의 소통에 실마리를 제시해줬다는 평가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11월 1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제10회 반야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간단히 인사말과 시상 및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장 지안 스님은 반야학술상 제정에 대해 "불교 학자를 응원하고 불교계 학술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스님은 "신앙적 측면에서 법회나 기도 등은 잘해왔지만 불교 전반에 걸친 학술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11월 1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제10회 반야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연구 분야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을 당시 교수님들의 제안이 있었다"며 "반야학술상은 불교 학자들을 응원하고 그 공덕을 찬탄하기 위해서 제정됐고 불교 교법을 진실하게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불교계를 위해 활동을 잘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0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는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다. 김성철 교수는 서울대 치과대학 치의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도철학과 석사와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동국대(경주, 서울), 중앙승가대, 성화대(현 선문대) 강사로 활동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장경연구소장,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불교문화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이다. 저서는 〈역설과 중관논리〉, 〈용수의 중관논리의 기원〉, 〈중관사상〉, 〈붓다의 과학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2월 2일 운영위를 개최하고 학술상 심사 규정에서 사회 업적 부분을 강조, 심사키로 결의했다. 8월 13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3차에 걸친 심사 후 최종 결정됐다.

이에 대해 김성철 교수는 "사실 반야불교문화원과는 큰 인연도 없을 뿐 아니라 스님 혹은 교수님들과도 소통이 없었는데 수상 소식에 놀랐다"며 "앞으로 정년이 2년 정도 남았다. 그동안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지안 스님은 "상을 받는 교수님과 학술연구에 앞장서는 교수님들이 주인공이다"며 "수상자 지정에 그 어떤 간섭도 없어야 하며 순수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반야불교문화원은 2011년 8월 설립됐다. 매년 반야학술상을 시상하며 불교 학자 연구지원 및 학술 활동을 후원했다. 아울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불교연구 발표를 이어오고 있으며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 사업, 불교고전 번역 및 불교 서적 기획출판, 불교학술지 및 월간 반야 보급 등에 앞장서 왔다.

광주불교연합회 회장에 도성 스님

11월 3일 정기총회서 당선
"승가화합, 원융살림" 포부



광주불교를 대표하는 광주불교연합회 회장에 도성 스님(복암사 주지 · 사진)이 당선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지난 11월 3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도성 스님, 수석부회장에 도계 스님(소원정사 주지), 월인 스님(법륜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을 선출했다. 감사에도 인성 스님(관음암 주지), 혜법 스님(미륵사 주지)을 선출하고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제5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당선된 도성 스님은 "2년간의 소임을 통해 지금보다는 더 발전하는 광주불교의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승가의 화합과 원융살림을 통해 건강한 단체를 만들고, 종단을 넘어서 어른 스님들을 늘 예경하고 후배스님들과 화합해 단체를 같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불교연합회는 창립 후 8년간의 여정을 통해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승가단체이자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는 불교단체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선출된 도성 스님은 1974년 장성 백양사에서 출가해 1981년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백양사 교무국장, 무안 보광정사 주지, 광주 관음사 주지, 호남불교대학 학장, 광주 정토선원 창건, 영광 불갑사 주지, 영광 마라난타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39호 전통불복장 전수자이기도 한 스님은 광주 복암사 주지와 백양사 인사위원장,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대표 등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보경 스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제 41회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복지향상 노력 공로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이 제41회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경 스님은 11월 4일 전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 41회 흰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복지대회〈사진〉에서 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한 보경 스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왔을 뿐인데 부끄럽다"며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해주시는 쌍봉사 섬김봉사단을 대리해 수상한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보경 스님은 진안지역의 7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의 여름수련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비의 쌀과 난방유 등 시각장애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왔다.

송경효 시각장애인협회 진안지회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보경 스님의 수상을 진안 시각장애인들을 대표해 축하드린다"며 "진안에서 최초로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기념식에서 행사장 안내와 시각장애인들의 식사도우미로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보경 스님은 섬김봉사단(단장 양행금)과 함께 '찾아가는 마을 밥상'을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자비의 쌀 나눔, 코로나 방역봉사활동, 수제마스크 만들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겨울 난방유 지원 봉사활동에 동참해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토마을, 코로나도 이겨 낸 국경 넘은 사랑

국경없는민들레, 11월 3일
미얀마에 긴급구호물품 전달

코로나19로 오고가는 국경은 막혔어도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온정은 더욱 따뜻해졌다.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국경없는민들레(원장 능행 · 이하 국경없는민들레)는 11월 3일 정토마을 경내에서 미얀마 긴급구호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정토마을국경없는민들레는 현대문명의 불모지인 해외 오지에 진료소 건립, 의료봉사 등 국제 의료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매년 해외 오지를 방문하며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을 할 수 없자 또 다른 후원 방법을 모색, 멈추지 않는 나눔으로 눈길을 모았다.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국경없는민들레는 11월 3일 정토마을 경내에서 미얀마 긴급구호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국경없는민들레는 미얀마에 40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긴급구호물품은 검사키트, 방호복, 보호대, 장갑, 마스크, 생필품 등 총 17만183개, 114박스로 꾸려졌다.

국경없는민들레의 나눔 활동은 6월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6월 21일~8월 27일 동안 1차 모금활동을 진행해 1억 1561만원을 모았고 네팔 수나빠띠 마을, 인도 보디트리후원회 (사)물라싼가, 스리랑카 데니야야 딤블라, 전남 곡성 침수피해지역 등에 모든 금액을 회향했다.

2차는 9월 21일~10월 21일 동안 진행됐으며 총 1억5561만원을 모금해 긴급후원을 진행했다. 2차 후원금은 스리랑카, 필리핀, 남인도, 미얀마 등 해외 오지에 전달됐다.

전달식에는 정토마을 원장 능행 스님, 지안 스님 외 관계자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능행 스님은 "코로나 사태가 인도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식량, 식자재 그리고 의료 장비들을 지원하며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다"며 "생명보호는 정토마을의 실천철학이자 사명이다. 일체 중생들의 평화적 공존과 공생을 위해 우리는 헌신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불교, 제9회 전통음식문화 한마당

11월 4일 해남사서 현대인 삶의 방향 제시 평가

자연에서 나온 순수한 계절 음식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산옹)는 11월 4일 해남사 경내 일대에서 '제9회 전통음식 한마당'〈사진〉을 개최했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가 주최하고 해남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봄, 가을, 꽃, 약초, 울산 옹기와 도자기에 담은 계절 차림'이란 주제로 마련됐다.

선보인 음식들은 사찰음식전문가 명천 스님과 마선영 소목문화원 대표가 직접 마련한 제철 채식요리이다. 명천 스님은 30년 간 불교 복식과 불화, 공양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전파하는데 매진하고 있으며, 마선영 대표는 20년 간 선원에서 활동하며 사찰 음식과 채식요리를 연구해 다양하게 알리는 데 노력해왔다.



울산불교사암연합회장 산옹 스님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지만 오래된 것들과 느림의 가치를 발견하고 음식의 향기를 나누며 담소의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울산불교연합회장 산옹 스님, 해남사 주지 혜원 스님, 월봉사 주지 보화 스님, 정광사 주지 유정 스님, 향원암 명천 스님,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회의장, 박태완 울산중구청장 외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45기 합동득도 수계산림법회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호명)이 제45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수계식〈사진〉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가 수행자 60명을 배출했다.

11월 4일 순천 선암사(주지 시각) 대웅전 앞에서 봉행된 수계식에는 종정 지허 스님과 삼사로 나선 총무원장 호명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호법원장 지현 스님을 비롯해 각 지역 종무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계한 사미 43명, 사미니 17명은 10월 6일부터 30일간 기초습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예불 및 불공의식, 종지 · 종풍과 종단사 교육, 울력 등을 진행했다.

지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무릇 수행자는 성불을 목표로 정진해야 한다. 부처님의 경전은 모두 성불하여 부처가 되라는 말이므로, 신심을 다해 정진하고 그 원을 돈독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계식 교육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은 정법(제성민), 우수상 덕인(박정숙), 모범상 인정(이범덕), 공로상 화화(윤병열), 공로상 법담(정영효) 스님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좌불와 정오 스님 49재 회향법회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석굴이 모셔진 팔공산 석굴암 경내 극락전에서 11월 4일 여산당 정오 스님의 49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회향법회에는 입적한 정오 스님의 은사인 팔공산 석굴암 주지 법등 스님과 문경 봉암사 초대 선원장 법화 스님, 성전암 현응선원장 벽담 스님을 비롯한 도반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입적한 정오 스님은 1958년 전북 순창군 복흥면에서 태어나 1977년 대구 동화사에서 법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9년 동화사 염불암에서 장자불와를 시작해 ,벽송사, 봉암사,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등지에서 42여년간 결가부좌로 자리에 눕지 않고 정진해 수행가풍을 일신했다. 이후 1994년 전라도 곡성군에 위치한 삼불산 아래 만년사를 창건했다. 스님은 2020년 9월 17일 만년사에서 법랍 44세, 세수 63세로 입적했다.

법화 스님은 "생사가 둘 아닌 도리를 알아 대자연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산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성료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 2020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인 '마음 쉬는 토요일'〈사진〉이 11월 1일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성료됐다.

'문화재 활용이 최고의 보존이다'는 기치 아래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김제시와 함께 전통산사에 깃든 역사문화재를 향유하고 오늘날 시대정신에 맞게 재해석된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했다는 평가다.

금산사는 소리꾼 두 명이 출연하는 '놀부가 들려주는 금산사 보물이야기', 미륵전 인경체험, 미륵전을 전통 결구법으로 조립해보는 미륵전 신건축학개론, 오유지족 다식다도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열어 코로나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국보 제62호인 미륵전은 미륵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을 형상화한 것인데 이 전각 안에 깃든 지족(知足)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순간 순간 만족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의미를 배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